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배상*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 Marie (온타리오주)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2017. 7. 9(일) ~ 7. 30(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파견대학 위치: 수세인트마리라는 지역에 위치에 있습니다. 규모 및 시설: 조용한 시골마을 같은 곳에 있어요. 버스가 시간마다 늦게 와서 놓치면 무조건 지각이에요. 시설은 깔끔하고 좋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방학기간이라 캐나다 학생들은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저희처럼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온 다른 나라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내용: 테스트를 통해 2개의 반을 나누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접속사, 캐나다표현, 분사 등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방법: 선생님마다 다르신데, 거의 발표하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사: 선생님들은 무척 좋으세요. 정말 열정적이고 쉽게 가르쳐주시려고 노력하셔서 저 또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과제: 생각보다 많았어요. 피피티만들기, 문장암기 등의 숙제들이 있었고, 봉사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준비도 해야되서 생각보다 하는게 많았어요.</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컬러런: 지역축제의 하나로써 도로하나를 통제해서 마라톤을 하는거예요. 지나갈 때 사람들이 밀가루 뿌려줘요. 옷은 주되, 신발이랑 바지가 정말 더러워져서 버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해요.</p> <p>*pathway봉사: 요양원같은 시설에서 봉사를 했어요. 3팀으로 나누어 미술, 음악,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재능봉사를 했어요.</p> <p>*비행기박물관, 로터리페스티발 등의 활동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캐나다스러운 활동은 없어요. 수세인트마리라는 지역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캐나다의 이국적인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여기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구요. 평화롭고 언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강하시다면 여기를 추천해드려요.</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아침과 저녁은 기모후드를 입어도 괜찮을 정도의 쌀쌀한 날씨구요. 낮에는 찜찜하게 더운건 아니지만 햇빛이 강해서 덥습니다. 긴팔&반팔을 적절히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집 자체에 대부분 문을 잠그는 장치도 없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으나 별일없이 무사히 지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좋은 가족 분들을 만났어요. 일본인 1명 그리고 부모님과 딸 한명이 사는 가족이었어요. 제가 영어가 서툴러도 기다려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해주셨어요. 그리고 버스교통이 불편해서 자가용으로 픽업도 자주 해주셨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내에는 햄버거가 파는데 사먹어보진 않았어요. 대부분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보통 점심은 샌드위치나 파스타 등이라 한식이 땡길 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라면이랑 밥을 좀 챙겨가서 가끔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외부식당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일찍 닫아요. 오후8시나 7시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버스를 타고 다녀야 해요. 제가 타는 버스는 1시간마다 한번씩 오는 버스라 너무 힘들었어요.. 버스하나 놓치면 무조건 지각이었구 항상 등교시간보다 엄청 일찍 가거나 늦게 가야했어요. 모든 버스는 터미널에 섭니다. 터미널에서는 15분 45분마다 와서 터미널에서는 수월하게 탔던 것 같아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30,3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779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지출비	400,000	식비, 기념품비
합계	1,902,079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모기약 꼭 챙기세요. 모기가 우리나라랑 차원이 달라요. 한방물리면 크게 부풀고 잘 안 가라앉아요. 모기로 엄청 고생했어요. 근처 약국에서 꼭 사시는게 좋아요.

선크림 꼭 챙기세요. 햇빛이 뜨거워서 그런지 몸에 껍질이 벗겨집니다.

돼지코 챙기세요. 우리나라랑 전압이 달라서 필요합니다.

노트북 챙기세요. 과제같은거나 뭐 검색할 때 노트북이 유용합니다.

동전지갑 챙기세요. 1달러 2달러도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주시기 때문에 동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좋기도 했고, 너무 아쉽기도 했어요.

좋았던 점은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좋은 가족들, 선생님들, 주민들,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게 행복했어요. 대화는 잘 안통하지만 서로 배려해주는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른 정서를 가졌는데, 저는 본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날 만난 사람들과 헤어지는게 아쉬워서 펄펄 울었어요.

아쉬웠던 점은 어학연수로 왔다는 점이에요. 사실 출발하기 전에 3주는 나름 길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3주를 지내보니까 적응하자마자 마지막 날이더라구요. 그리고 생각보다 학교수업이 타이트합니다. 솔직히 학교에서의 수업들이 큰 이득을 준 것이 없어서 안가는게 이익일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멀리 못 놀러가고, 캐나다를 별로 즐기지 못한 것도 있어요. 정말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교환학생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캐나다의 이국적인 느낌을 받구 싶다면 여행으로 밴쿠버나 토론토를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세인트마리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안좋게 말하면 할 게 없어요. 저

희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평화로운 것을 좋아해서 수세인트마리 지역이 좋았어요. 단지 맨날 학교가고 과제하는게 아쉬웠어요. 캐나다는 나라를 가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으니 잘 고려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아이들 재능봉사</p>	<p>pathway 봉사</p>
	
<p>수세인트마리거리</p>	<p>퍼레이드</p>
	
<p>비행기박물관</p>	<p>lake superior</p>